# 光州日報

제1792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1월 27일 (음력 10월 18일) 화요일

## 대선 D-22 '사상 최다' 12명 출사표…오늘부터 공식 선거전

〈원내 숫자는 선거 기호〉

①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②이명박 〈한나라당〉 ③권영길 〈민주노동당〉 ④이인제 〈민주당〉 ⑤심대평 〈국민중심당〉 ⑥문국현 〈창조한국당〉 ⑦정근모 〈참주인연합〉 ⑧허경영 〈경제공화당〉 ⑨전관 〈새시대참사람연합〉 ⑩금민 〈한국사회당〉 ⑪이수성 〈국민연대〉 ⑫이회창 〈무소속〉

## 與도 野도 분열…다자구도 낮은 투표율 극복 과제로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이 26일 마감됨에 따라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22일간 대선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관련기사 4면〉

대선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국민중심당 심대평,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9명이 등록한 데 이어 26일에는 무소속 이회창,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이수성 후보,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가 등록을 마치는 등 모두 12명이 이번 대선에 공식 출마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후보 수는 종전에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87년 13대와 92년 14대 대선 때의 각각 8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은 여권과 야권이 분열되면서 다자구도로 진행됨에 따라 양대 후보로 압축됐던 역대 대선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이명박 후보가 40% 내외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BBK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막판 변수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범여권 후보들의 낮은 지지도와 개혁진영의 분열로 인해 대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어느 선거 때보다 낮은 투표율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전이 개막되는 27일 새벽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불꽃 튀는 유세전에 들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7일 새벽 여수에서 시민들과 함께 여수박람회 유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이날 새벽 0시 동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오전 8시 국립 현충원을 찾은 뒤 서울 숭례문에서 대선출정식을 갖고 정권교체의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이날 비정규직 시위가 열렸던 서울 상암 홈에버에서 출정식을 한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구로디지털단지와 연세대학교·서울역·시청역 등지에서 유세를 한 뒤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이날 새벽 여수에서 2012년 엑스포 유치 결과를 지켜본 뒤 여의도 당사에서 출정식을 열고 서울역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26일 밤을 새우며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철야응원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풍물놀이를 벌이며 여수엑스포 유치를 간절하게 소망했다. /여수=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여수의 꿈' 아낌없이 펼쳤다

### 오늘 새벽 BIE총회…2012엑스포 개최지 결정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후회없이 뛰었다"

지난 1996년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이 시작된 이후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던 10여년간의 유치전이 모두 끝났다. 정부와 전남도·여수시를 비롯해 지역 주민, 민간단체와 기업 등은 오로지 여수박람회 유치라는 열정 하나만으로 똘똘 뭉쳐 10년을 쉼없이 달려왔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 시·도민의 눈물과 땀이 담긴 10여년간의 대장정,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27일 새벽 3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42차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의 투표를 끝으로 모두 종료됐다.

지난 2004년 12월 14일 국가계획 확정 이래 펼쳐진 박람회 유치전은 중앙과 지방, 민관이 함께 어우러져 벌인 한 판의 드라마였다.

해양수산부와 외교통상부, 박람회유치위원회, 전남도, 여수시, 지방유치위원회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부처장관, 김재철 유치위원장과 정몽구 명예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은 박람회 유치의 선봉장을 맡아 전 세계를 누벼 왔다.

또 여수 시민들은 지난 4월 9~12일 실시된 BIE의 엑스포 개최 후보지 실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연도에 나와 실사단을 환영하며 박람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유감없이 뿜어내 실사단으로부터 "엑설런트"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2012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이들은 모두가 승리자로 남게 됐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파리=홍행기기자 redplane@

## 광주향교 '亞문화권' 개발

광주시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인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주변이 아시아문화유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또 광주향교 인근 구동체육관과 전남도체육회관도 재건축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26일 "광주향교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품격있는 문화공간으로 정비해 아름다운 도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구동체육관 등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이 일대를 아시아문화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권'은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광주도심 리모델링 관련 7대 문화권조성 사업중 하나다. /채희종기자 chae@

**社告**

## 제21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30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이정길 교수 '목 디스크의 예방과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30일(금) '제21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목 디스크의 치료'를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신경외과 이정길 교수로, 목 디스크의 증상·진단·치료·수술방법·인공 디스크의 치환 수술법 등 목 디스크의 모든 것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 주 제 : 목 디스크의 치료
- 강 사 : 이정길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 대한신경외과 학회 정회원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일 시 : 11월30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